

ISSUE & FOCUS

Newsletter 2015-10

[공동체자유주의]를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으로 제안한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창립9주년 기념식(9.24)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정신으로 제안했다. 공동체자유주의를 기치로 정치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근본임을 강조하는 <민본적 민주주의> 완성을, 경제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인본적 자본주의>의 실현을, 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신의 빈곤, 마음의 빈곤을 떨쳐내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적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국민통합, 국가개조,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앞으로 정책연구 활동을 스마트한 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포용적 사회발전이라는 3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9월 24일 진행된 창립9주년 기념식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시

대의 새로운 국가정신으로 제안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서양적 가치라면 공동체주의는 가족,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과 역사를 포함하는 동양적 가치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하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지나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이것을 국가의 가치, 국가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국가의 지향가치는 미래를 향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의 중심가치는 시대정신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시대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부 홈페이지를 봐도 국정기조는 보이지만 지향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서 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 가치와 사상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지향하는 중심가치가 보이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국정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지향가치가 분명하지 못하면 정책목표를 세우기 힘들고 정책 목표를 세우더라도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 처방을 하게 된다. 국민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보다 자기중심의 성향을 보이게 된다. 오늘날 자유라는 이름으로 과잉 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자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그러나 이 자유는 각자에게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한다. 이 결과 곳곳에서 자유의 과잉화가 나타나고 나아가 과잉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것이 공동체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자유’가 과연 최선인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이렇듯 국가의 기본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 지키지 못하고 과잉 이기주의로 흐르게 된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부작용을 낳는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자유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자유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공동체까지 훼손하면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치 현장이나 각종 과격 시위 등 오늘날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는 자유의 과잉은 각종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하는 사회에서는 반성이나 참회는 없고 반목과 질시가 넘친다. 이런 사회에선 믿음이 솟아날 리 없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로 나타난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 무기력증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또 다른 가치는 민주주의이다. ‘자유’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개

인의 창의적 활동을 유발한다면 민주주의는 이를 보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자기 이익,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남용 또는 악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에서 보듯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오히려 소수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과 행동을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인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만끽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태는 옳바르지 않다. 이는 ‘천민민주주의’ 행태이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 정칙(正則)이지만, 천민민주주의는 책임은 피하고 자유만 강조한다. 자유가 절제되지 않고 방임으로 흐르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기 힘들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자유를 억압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강조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있다.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남의 책임만 강조하는 천민민주주의화 경향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자유주의는 ‘과잉 자유주의’로, 민주주의는 ‘과잉 민주주의’로 흐르면서 사회적 갈등의 격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갈등과 침체된 사회분위기는 이로부터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로서 근대화를 성취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미덕의 예의 범절과 공동체의 약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비생산적인 정치,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 소득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분의 격차 확대 현상도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공동체의 약화와 자유의 과잉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 미덕이었던 선공후사의 정신과 같은 도덕과 예의가 쇠퇴한지 이미 오래이다. 동방예의지국이었던 나라에서 도덕·인격적으로 권위를 가진 분을 찾기가 힘든 현실이 그러하다. 여기에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인구사회학적 현상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봐도 사랑과 믿음을 주는 곳은 찾기 어렵고 대신 갈등과 미움은 넘쳐난다.

갈등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웃음보다는 불만의 표정이 역력하다. 사람들은 이 불만을 쏟아내려고 분출구를 찾고 있다. 그 분출구 중의 하나가 ‘정치화’ 현상이다. 정치적 문제를 비롯해서 노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은 물론이고 이익집단의 이익분쟁까지도 정치화 한다. 실제 우리사회에는 사적인 문제까지 정치화한다. 개인적인 사소한 일들도 이익과 관계되면 이를 정치문제화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아주 개인적 문제까지 정치화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들은 정치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난다. 그

러면서도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표변(豹變)하여 민주주의 적으로 매도한다. 이렇듯 민주주의를 자기의 입맛대로 활용한다.

한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의 중요성이 큰 데도 우리 현실을 보면 국가의 중심 가치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러다 보니 개인의 이기주의는 강화되고 공동체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사랑, 헌신, 관용, 배려, 정직, 자기책임의 덕목보다는 방관, 투쟁, 책임 회피, 거짓, 이기심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결국 공동체는 약화되고 종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개인까지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동체의 약화는 과잉 이기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약화되면 자유의 일탈과 과잉 이기주의가 발흥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수시로 목도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절제하고 공공이익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직 현재의 자기 이익에만 매달린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율이자 울타리인 법과 제도마저 무시하게 된다. 공동체가 개인의 일탈된 자유를 규율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혼란이 발생하고, 그런 사회는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무기력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적 위기뿐만 아니라 물질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가치와 사상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창립 9주년 기념식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시대의 가치로 제안한 것이다. 공동체자유주의 가치아래 정치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근본임을 강조하는 <민본적 민주주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경제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인본적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신의 빈곤, 마음의 빈곤을 떨쳐내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적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국민통합, 국가개조,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앞으로 정책연구 활동을 스마트한 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포용적 사회발전이라는 3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의 ‘중심가치’가 바로 서면 정부는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세워 정책

을 펼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에게는 희망을, 사회에는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국가의 '중심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하고 지켜나가면, 국가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국가 안위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창립 9주년을 계기로 제안한 '공동체자유주의'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국가이념으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